

###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했다. 앞으로도 몇 년은 기근이 계속될 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나안의 굶주림에 방치할 수는 없었다. 애굽의 파라오도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이다”. 사실상 베냐민을 포기했던 야곱에게 믿기 어려운 사실이 전해졌다. 시므온도, 베냐민도 무사하고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다. 야곱은 어리둥절했다. 요셉은 이미 죽었고 시므온에 이어서 베냐민 마저 잃을 각오를 했는데 모두 살아 있다니. 게다가 요셉이 살아서 총리가 되어 있다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요셉이 보내온 애굽의 의전용 전차를 보니 자식들의 말이 믿어졌다.

###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 창세기 46:1**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를 찾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나이가 백삼십 세가 되었으니 다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할 길이었다. 전에도 길을 떠나며 기도했던 때가 있었다.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던 밤, 꿈을 꾸고 일어난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러나 백삼십 세가 된 노인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돌아오지 못할 길이 두려울 뿐이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창세기 46:3**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할머니 사라를 파라오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 아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시기도 했었다. 집안 대대로 애굽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었다.

###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 창세기 46:3-4**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야곱이 벤엘에서 드렸던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다. 언제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과 늘 동행하셨다. 벤엘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로, 다시 벤엘로.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약속하셨다. 야곱이 북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이제 남쪽으로 갈 때에도 동행을 약속하셨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준비한다. 현지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걱정하면서 먹고 쓸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올 날 까지 염려하며 여정을 준비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준비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정말 그렇다.